창사 67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한방 · 양방협진 / 비수술치료
목포 청연한방병원

제8849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음력 12월 17일)

‘계엄’ 43일 만에…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 체포

현직 대통령 체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갑자기 ‘자진 출석’ 방식 요구…공수처 ‘일축’
극렬지지자 향한 메시지 발표 ‘국민 갈라치기’
野 “헌정질서 회복”…與 “공수처·경찰이 불법”

‘12·3 내란 사태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인 15일 오전 10시3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관련기사 2·3·4·6·8면

공조본은 이날 오전 5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불법 영장 집행”이라며 맞서 2시간 정도 대치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체포가 목전에 이르자 ‘자진 출석’ 방식으로 수사에 응하겠다는 등의 엉뚱한 요구를 갑자기 늘어놓기도 했지만,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일축했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이자 법원의 영장을 물리력으로 막는 등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윤 대통령은 이날도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특히 자신의 극렬 지지자를 향한 영상 메시지를 내놓으며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2분48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지층을 향해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내란 수괴’ 피의자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정치권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3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 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돼 다행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며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윤석열의 경제·정치·주술공동체인 김건희도 조속히 체포해야 한다. 김건희 자체의 범죄는 물론 내란 과정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이날도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주장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후 주요 절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제시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 ‘미란다 원칙’ 설명
  체포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림
- 공수처 조사실로 이동해 조사
  조사 시간 외 서울구치소 구금 예정
-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체포시점부터 48시간 내 미청구 시 석방
- 구속영장 청구 시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 영장 발부 / 영장 기각
- 구속

연합뉴스

공수처로 들어가는 尹 대통령 15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에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과천시 소재 공수처에 도착,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